

## 아내 우울증과 성역할 분석

이 현 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문제제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릴 만큼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이다. 일반인의 경우 적어도 12% 가량이 인생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정신과 입원환자 중 75%가 우울증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Fennell, 1995). 많은 경우에 정신건강의 척도를 우울증세로 가름하는데 비교적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한인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정신건강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im & Hurh, 1988; Kim, 1989; Kim & Berry, 1985; Min, 1992a; Lee, 1988; Shin, 1993). 또한,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 척도가 되는 우울증을 대비하여 보면 미국 내에서의 일반 모집단보다 재미한인여성들이 비교적 높은 우울증 증세를 보여준다(Keith & Hong, 1994; Noh, Avison & Kaspar, 1992a; Noh, Speechley, Kaspar & Wu, 1992b; Noh, Wu, Speechley & Kaspar, 1992c; Shin, 1992; Shin, 1993). 이러한 재미 한인 교포 여성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경제적인 환경의 차이점과 정신적인 압박감을 견디어야만 하는 부담 때문이다. 또한 한인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와 고집스럽게 존속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재미한인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보여진다(Kim & Hurh, 1988; Song, 1986).

재미한인 주부들의 역할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다가 생계 부담자의 역할을 첨가하여 그 역할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role expansion)이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가정주부는 가사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맞벌이가 생

존의 필수 조건일 수 있기 때문에, 재미한인 아내들은 집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에도 참여하여야만 한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한국 주부들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은 대부분이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 독단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다수의 한국의 남편들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 남성의 위치는 가정 내에서 아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남편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가족성원들은 가부장(家父長)에게 복종해야 한다(Lee, 1988; Song, 1986). 이러한 가정환경 내에서 재미한인 아내들은 미국에서 연구된 다른 모집단과 비교하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다 부정적인 증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Verbrugge, 1983; Verbrugge, 1986). 한국인의 보수적인 성역할과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해야만 하는 이중고(二重苦)는 심리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논문에서 다룰 것은 재미한인들의 성역할 태도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상태의 대표적인 지표인 우울증의 상태를 측정함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성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이론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융통성이 있는 성역할이 여성의 총체적 건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전의 학자들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직장을 갖는 것, 이혼율의 증가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로 전통적인 성역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기존 과거의 사회에서와 사뭇 다른 결과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실제적으로, 여성이 비전통적(non-traditional)이거나 양성(兩性 androgynous)의 성역할이 좀더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Alspach, 1982; Baucom & Sanders, 1978; Bem, 1974; Bridges, 1981; Gore & Mangione, 1983; Gump, 1972; Hinrichsen, Follansbee & Ganellen, 1981; Holmes, 1982; House, 1986; Juni & Grimm, 1993; Nezu & Nezu, 1987; Whitley & Gridley, 1993; Zammichieli, Gilroy & Sherman, 1988).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집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더 이상 부응하지 않으며 여성으로 하

여금 제한된 방어기제에만 의지하게 만든다. 성역할의 정체성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Steinberg, Leichner & Harper, 1987)은 남성적이거나 양성적(兩性的, androgynous)인 성역할(masculine /androgynous gender-role attitudes)을 취하는 여성들이 여성적이거나 분화되지 않은 성역할(feminine/undifferentiated gender-role attitudes)을 취하는 여성들에 비하여 우울증과 불안증세(anxiety)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경험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성은 우울 증세와 불안증세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오히려 양성적이거나 역성(逆性, cross-gender)의 성역할 태도는 전통의 단성(丹性)의 여성적 형태의 성역할보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고 보고한다(Rendely, Holstrom & Karp, 1984).

## 2) 성역할의 부부 상호 조화도(gender-role congruency)와 우울증

Krause에 의하면 (1982, 1983), 기혼 여성들의 복지(well-being)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성역할의 오리엔테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부부간의 조화에 있다고 한다. 다른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여성들이 성역할에 대하여 부부간 갈등이 있게 되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rause, 1982; Krause, 1983; Krause, 1984; Van Fossen, 1981).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간의 성역할의 갈등 혹은 부조화는 우울증을 야기 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미 한인 부부들의 성역할 태도와 아내들의 우울증과의 관계성과 가족의 구조 내에서 성역할이 재미한인 아내들의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명확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미 한인 부부들이 비전통적인/전통적인 성역할의 태도와 우울증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성역할의 태도 상호조화도와 아내의 우울증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미 한인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 1) 연구대상

표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는 158명의 재미 한국인 기혼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대상은 무작위로 추출된 산호세 지역 7개의 한인 교회의 신자들로 25세에서 65세까지의 이민 1세대 재미한인 기혼여성들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한자, 그리고 이민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시켰다. 산호세 지역 69개의 한인 교회 중 10개의 교회를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선택된 10개의 교회들 중에서 7개의 교회가 참여하였다. 303명의 대상자 중 158명의 재미한인 기혼 여성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한국인 교회가 선택된 것은 재미한인동포들이 모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재미 한인교포의 대다수가 교회나 동창회(남성의 64%; 여성의 67%)와 같은 모임에 가입한다(Kim & Hurh, 1980). Min (1989)은 약 67%의 재미교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한국인 교회에 출석 하는 이유는 교회의 사회적인 기능 때문이다. 재미한인교회들은 친목을 도모하거나; 한국인 전통문화를 유지하거나; 사회 봉사를 마련하거나; 사회 봉사를 통해 한국 학교나, 성경학교, 세미나나 회의 등을 마련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대해서 나누기도 한다(Min, 1992b). 그런 의미에서 재미 한인 교회는 종교적인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 교회의 주소록을 근거로 한 본 연구는 답변률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sup>1)</sup>

## 2) 연구 질문들

본 연구의 중요변수는 재미 한인 교포 부부들의 성역할 태도들과 아내들의 우울증의 수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의 태도, 그리고 부부의 성역할의 태도의 부조화와 종속변수인 아내 우울증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정렬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계성을 나타낸다:

- (1) 아내의 성역할의 태도와 아내의 우울증
- (2) 남편의 성역할의 태도와 아내의 우울증
- (3) 부부의 성역할 조화도와 아내의 우울증

1)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 한 논문은 94%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Shin, 1993).

### 3) 주요 변수

#### (1) 종속변수와 척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미 한인 교포 아내들의 우울증의 정도이다. 재미한인 아내들의 정신적인 복지에 대한 측정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에서 나온 우울증에 대한 척도를 썼다. 이 척도의 본명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으로서 1977년 Radloff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다. CES-D는 자가보고 형식 또는 인터뷰의 형식으로 보고 될 수 있다(Radloff, 1977). CES-D 척도는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척도이다. 증상들은 증상의 빈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고 우울 증세의 여부와 증상의 경중도 함께 측정될 수 있다.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이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 CES-D의 합계 수치는 0에서 60까지로 우울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답변은 0(적어도 1주일에 한번)에서 3(대부분 또는 모든 시간)까지 코딩되었고 우울 증세에 대한 긍정 항목과 부정항목이 섞여 있어서 항목의 점수는 재 코딩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우울증의 총점은 16이 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우울증세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의 중증을 의미한다. CES-D 척도의 타당성은 다수의 논문들에서 논의되었고(Clark, Aneshensel, Frerichs & Morgan, 1981; Hankin & Locke, 1982; Roberts, Vernon & Rhoades, 1989; Weissman et al, 1976) 한국어로 번역된 CES-D 척도도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이 입증되었다.(Noh, 1998). CES-D척도는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Hurh, 1990a; Hurh, 1990b; Robert, 1989)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역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준다.(Kuo, 1984; Noh, 1998; Roberts, 1980; Weissman, Sholomskas & Pottenger, 1976).

CES-D의 한국어 판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 학자, 김광중과 허운무에 의해 번역되었다. 그들은 1988년에 한국인 이민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하여 보고 하면서 CES-D의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고(Hurh & Kim, 1988) 이후 노 사무엘이 1992년 기존 번역판인 CES-D-K 척도를 정정했다(Noh et al., 1992c). 이 연구서에서는 허운무와 김광정에 의해서 처음 사용한 CES-D-K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로 밝혀졌다.

#### (2) 독립변수와 척도

재미한인아내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하여 제시된 결정적인 독립변수들은 부부간의

성역할 일치도와 부부들의 성역할의 태도이다.

#### a. 재미한인 부부들의 성역할 태도(gender-role attitude)

성역할의 태도는 여성에 대한 태도(the Attitude Toward Women Scale, AWS)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추려진 20가지 문항들로 측정된다(Spence & Helmreich, 1978). AWS는 폭 넓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성역할의 태도의 수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AWS의 목록에는 여성들의 권리, 역할, 그리고 특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AWS 원본에는 다섯 가지의 하위척도가 있다: (a) 직업적, 교육적, 지적인 역할; (b) 자유와 독립성; (c) 연애, 혼전 데이트 과정과 그 예절; (d) 음주, 욕, 외설스런 농담들, 그리고 성적인 행동; 그리고 (d) 부부간의 관계와 의무. AWS는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이 '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강하게 부정하는 것' 까지 다섯 가지 가능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

AWS 한국판은 한국의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한국인 응답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번역되었다(Lee, 1989). 3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판은 네 개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a) 사회적 성역할의 태도, (b)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의 태도, (c) 성관계에서의 성역할의 태도, 그리고 (d)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Lee, 1989).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관계들에 관한 목록은 재미한인교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외되었고 요인분석에서 요인 부하량(.40이하)이 낮은 14개의 목록도 제외되어 총 20항목만 선택되어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성역할의 하위 척도(subscales)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a) 사회적인 성역할 태도, (b)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c)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재미한인교포 아내들 자신의 성역할 태도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도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견해를 물어 측정되었는데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는 아내들의 정신적인 복지와 연관하여 중요한 독립변수로 추정된다. Hiller and Philliber (1986)의 주장과 같이 보수적인 재미한인 남편들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성역할의 가정 내의 설정에 있어서도 역시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가 중요한 영향력 행사에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역할 태도는 AWS의 한국판을 개정하여 측정되었고 사용된 성역할 태도 척도는 아내와 남편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의미하며 낮은 합계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아내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80,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83으로 산출되었다.

### b. 남편과 아내사이의 성역할 태도의 불일치도(inconsistency of gender-role)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역할의 불일치는 성역할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신건강의 척도이다. 성역할 태도의 일치에 관한 Bowen & Orthner's (1983)의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의 일치가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행복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성역할의 부부간의 불일치는 AWS에서 아내들의 성역할 태도 합계와 그들의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 합계의 사이의 차이점으로 구해졌다.

### (3) 통제 변수들

통제변수들로는 나이, 미국에 입국한 때의 연령, 수입, 교육, 거주 기간, 직업, 이민 이전의 직업, 자식들의 숫자와 나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도움, 그리고 직업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우편 조사로 모아졌다. 이 연구의 도구는 7개 한인교회의 대상자들에게 편지로 전달되었다. 첫 번째 설문지는 1998년 2월 첫 주에 발송되었다. 첫 번째의 발송에 대하여 50%보다 약간 적은 145명이 응답하였고 첫 번째 우편물이 발송된 후 약 2달 후(1998년 4월 첫 주)에 설문지가 두 번째로 대상자들에게 배달되었다. 두 번째 발송 후에, 35명이 추가로 응답하여 답변률은 60%를 넘는다. 본 연구만을 위하여 개설하였던 사서함은 1998년 5월 31일에 취소되어 이후에 들어온 응답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문지를 발송할 때 응답할 때 보낼 우표가 붙여진 봉투가 제공되었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한인 상점의 5달러 상당의 상품권이 첫 설문지와 함께 동봉되었다.

## 5) 자료 분석

303개의 설문지 중에서 180개가 되돌아 왔는데 이 중 충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22개의 설문지는 마지막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58개의 설문지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10.0이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서는 주요변수들이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분석되었고 그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독립변수**

- (a) 아내들의 성역할 태도(WAT) : 아내의 사회적 성역할 태도, 아내의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태도, 아내의 고정관념상의 성역할 태도
- (b)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HAT) :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 태도, 남편의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태도, 남편의 고정관념상의 성역할 태도
- (c) 남편들과 아내들의 성역할 불일치도(DIF)

**종속변수**

- (a) 일반적인 우울 증세
- (b) 삶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우울 증세
- (c) 인간관계와 관련된 우울 증세

본 논문의 주된 의도는 직업여성과 비 직업 여성의 정신건강의 상태를 비교하고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 이전에 모든 입력된 자료는 직업 여성과 비 직업 여성으로 나누어서 분석된다.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기술적인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기초로 한다. 상관관계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물론 주요 변수들과 통제 변수간의 것도 분석도 포함된다. 성역할 태도와 우울 증세는 각각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분석을 세분화하였다. 자료의 두 번째 단계 분석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t-tests와 양 집단의 주요변수를 비교하기 위한 t-test가 또한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단계인데 통계적인 변수들 중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들이 독립변수 리스트에 입력의 방법으로 첨가된다.



## 4. 연구 결과

### 1) 표본의 특질

〈표 1〉 표본의 특질

	직장 재미한인 기혼여성	직장이 없는 재미한인 기혼여성	전체 표본
평균 아내의 연령	45.82	37.16	42세
평균 남편의 연령	49.91	40.04	46세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	14.65	6.55	11.05
총자녀수	2.19	1.88	2.06
같이사는 자녀수	1.47	1.72	1.58
같이 안사는 자녀수	.72	.16	.48
아내의 소득	\$27,982	해당 없음	\$16,066
남편의 소득	\$63,434	\$66683	\$64,832
총소득	\$97,119	\$71614	\$86,142
아내의 미국교육 했수	1.27	1.28	1.27
남편의 미국교육 했수	1.49	2.81	2.06
아내의 한국교육 했수	13.03	13.83	13.38
남편의 한국교육 했수	14.09	13.51	13.84
아내의 교육 했수	14.42	15.10	14.72
남편의 교육 했수	15.47	16.31	15.81
아내의 거주 했수	17.56	10.35	14.46
남편의 거주했수	18.72	13.01	16.28
아내의 이민시의 나이	28.41	26.84	27.73
남편의 이민시의 나이	31.24	27.15	29.48

독립표본 t-test를 비 직장 여성(68명)과 직장여성(90명)으로 나누어 특질들을 비교한 결과 아내들의 나이(.000), 남편의 나이(.000),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000), 총 자녀수 (.049), 남편의 미국 내에서의 교육기간(.019), 남편의 총 교육기간(.048), 아내의 미국 내 거주기간(.000), 남편의 미국 내 거주기간(.000), 남편의 이민시의 나이(.000), 그리고 아내의 소득(.000), 그리고 총소득(.004) 등은 직장여성집단과 비 직장 여성집단 간의 평균

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여성과 비 직장 여성을 비교하여 보면 직장여성이 비교적 나이가 많고(평균 46세)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서 총 자녀의 수가 2명을 초과하는 반면 비 직장 여성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평균 37세)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총 자녀의 수가 2명이 안 된다. 이러한 차이는 10년이라는 연령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특질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이가 비교적 적은 비 직장 여성들의 경우 가임 여성들로서 향후 자녀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육아의 책임 때문에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집단간 아내의 교육기간은 별 차이를 안 보이는 반면, 남편의 미국 내에서의 교육기간과 남편의 총 교육기간은 양 집단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흥미 있는 현상이다. 직장여성들의 남편이 더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의 거주기간 또한 직장여성과 비 직장여성 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직장에서 다수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장기화된 거주기간이 적응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육아의 책임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재미한인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아내들의 우울증증세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인여성들의 소지하는 직업의 종류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 역할 스트레스를 직업 만족도나 향상된 자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상쇄할 수 있으나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심리적인 곤란(psychological distress)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Baker, 1985; Baruch & Barnett, 1986C; Clery & Mechanic, 1983; Meleis, Norbeck, Laffrey, Solomon & Miller, 1989). 대부분의 직장에 종사하는 재미한인 아내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또한 본 논문의 결과 즉, 아내의 경제활동과 우울증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 2) 주요 변인의 특질

158명의 응답자 중에서 62명에 해당하는 아내들이 임상적으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평균 20%를 상회하지 않는 일반적인 통계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미 한인여성들이 비정상적 정신건강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균 우울증 수치는

14.9로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해 주는 16과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역할 태도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아내들의 성역할 태도가 평균과 분산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는 하위척도 개념으로 세분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남편이 아내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며 그 차이는 대응표본 t-test의 결과 유효한 것 ( $t=10.339$   $p=.000$ )으로 나타난다.

〈표 2〉 주요변수의 통계량

		우울증 총점	성역할 일치도	아내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성역할 태도
N	유효	158	158	158	158
평균		14.9051	11.0316	65.8481	56.3228
표준편차		10.5624	10.1463	9.8202	10.4919

〈표 3〉 성역할 태도의 하위척도의 통계량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 태도	아내의 사회적 성역할 태도	남편의 가정내에서의 성역할 태도	아내의 가정내에서의 성역할 태도	남편의 고정관념상의 성역할 태도	아내의 고정관념상의 성역할 태도
N	유효	158	158	158	158	158	158
평균		33.6582	37.2089	16.3671	21.1835	6.2975	7.7722
표준편차		5.2063	5.4947	5.1504	5.9422	2.3850	2.5109

직장여성과 비직장여성은 아내의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성역할 일치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내의 성역할은 비직장여성이 오히려 진보적이고( $t=2.14$   $p=.036$ ), 직장여성들의 남편들의 성역할이 비직장여성의 남편들의 성역할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t=-2.163$ ,  $p=.034$ ), 그 차이는 t-test를 통해 볼 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또 성역할 일치도는 비직장 부부들의 성역할 일치도가 여성이 직장을 가진 부부들의 성역할 일치도보다 수치가 높는데 이는 보다 큰 차이를 의미한다 ( $t= 3.961$  $p=.000$ ).

〈표 4〉 직장여성의 주요변수 통계량

		아내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성역할태도	성역할일치도	우울증 총점
N	유효	90	90	90	90
평균		64.7889	57.6444	8.8333	14.9000
표준편차		9.9781	9.3380	8.2179	10.0236

〈표 5〉 비직장여성의 주요변수 통계량

		아내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성역할태도	성역할일치도	우울증 총점
N	유효	68	68	68	68
평균		67.2500	54.5735	13.9412	14.9118
표준편차		9.4984	11.6904	11.6809	11.3120

2) 양 집단의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T-test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성역할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비 직업여성과 직업여성의 양 집단에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아래의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 직업여성은 성역할 태도와 우울증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직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여성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태도가 낮은 수치를 보일수록(보수적일수록) 아내의 우울증의 증세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가설의 검정

가설에 대한 검정은 t-test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여성의 취업여부로 나뉘어진 양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두 독립표본 t-test를 행하여 보수적인 성역할 집단과 비보수적인 성역할 집단의 우울증 정도를 비교하였다.

#### (1) 직장여성에 대한 가설 검정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비보수 집단과 보수 집단의 우울 증세를 비교해 보았다. 아내의 성역할과 남편의 성역할을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우울증의 총점을 비교해 본 결과 남편이 성역할이 비보수적인 경우와 보수적인 경우 우울증의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직장여성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 증세의 비교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아내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증비교	-.919	88	.360
남편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증비교	1.917	78.087	.059*
성역할 일치도에 따른 우울증비교	-1.103	88	.273

\* P <.10

#### (2) 비 직장 여성에 대한 가설검정

비 직장 여성에 대한 t-test는 앞에서 살펴본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역할태도에 따라서 우울증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test의 결과도 상관관계분석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9〉 비 직장 여성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 증세의 비교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아내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증비교	.062	66	.951
남편의 성역할에 따른 우울증비교	1.453	66	.151
성역할 일치도에 따른 우울증비교	-.450	66	.654

4) 의미 있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가설검증의 단계를 거쳐 우울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아내자신의 성역할 태도가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와 매개변수 중에서는 총소득, 남편의 소득, 그리고 남편의 총 교육기간이 의미 있는 변수로 발견된다. 이상의 변수만을 회귀분석에 대입하여 주요변수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밝혀진 직업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여 의미 있는 모형을 발견하였다. 다음의 모형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1)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와 소득

<표 10>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와 총소득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선형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125	8.345		4.688	.000**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	-.608	.234	-.263	-2.597	.011**
총 소득	-3.427	.000	-.232	-2.290	.024**

R<sup>2</sup> = .114, F = 5.573, P=.005

\*p <0.10 \*\*p <0.05

<표 11>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소득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선형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827	8.311		4.792	.000**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	-.599	.232	-.259	-2.581	.012**
남편의 소득	-6.824	.000	-.255	-2.544	.013**

R<sup>2</sup> = .125, F = 6.227, P=.003

\*p <0.10 \*\*p <0.05

(2)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총 교육기간

〈표 12〉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총 교육기간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선형회귀분석)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1.969	9.294		4.516	.000**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태도	-.507	.239	-.219	-2.122	.037**
총 남편의 교육 기간	-.623	.362	-.178	-1.722	.089*

R<sup>2</sup> = .091, F = 4.362

\*p <0.10 \*\*p <0.05

5. 결론

직업여성과 비 직업여성을 분석한 결과 비 직업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성역할 태도와 관계에 있어서 전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직업여성의 경우, 그들 자신이 아닌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HAT)와 남편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HS)만이 아내의 우울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과 우울증의 관계가 비 직장 여성의 경우와 직장여성의 경우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중된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여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장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내의 성역할은 여성 자신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남편의 성역할 태도들이 아내의 우울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직장여성의 통제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우울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재미한인 아내의 요인이 아닌 남편의 가진 인자(因子), 즉 남편의 소득, 남편의 총 교육기간과 같은 남편의 요건들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아내들이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한국 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혹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이 본토에 있는 한국인들 보다 문화적응이 느리며 오히려 전체적인 영역에서 보수적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이러한 적응패턴을 점착성의 적응(adhesive adaptation)<sup>2)</sup>이라 하는



데, 재미 한인교포들의 문화적 적응 패턴(acculturation adaptation pattern)은 점착성 적응패턴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서구의 성역할과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과 대치되는 것이다. 양 집단에 대한 자료분석은 기존의 성역할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론을 일률적으로 재미한인여성들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이론은 융통성 있고 비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재미한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역할 태도와 우울증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하도록 유추한다. 성역할과 정신건강의 관계가 성역할 자체의 비보수성, 보수성에 달려있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성역할과 개인이 가진 성역할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재미한인 교포의 성역할 문화는 아직도 보수적이고, 여성 자신들보다도 남편들은 더욱 보수적이며, 여성의 진보적인 역할 상황이 사회적 승인(social sanction)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문화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재미 한인들의 표본이 개방적인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다 명확한 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비슷한 표본을 가지고 같은 형태의 연구(replication)를 제안한다. 향후 성역할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실천에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며 또한 성차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국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필수 연구 영역이다.

## 6.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의 실천은 다양성에 대한 개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대상 집단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론과 접근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균등성,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등의 실현에 있어서 선제되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지구촌의

2) 점착성의 적용은 허운무와 김광정(1984)의 연구에서 정의된 것에 의하면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의 특정 관점의 새로운 문화와 사회관계가 이민자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존의 관점에 어떤 수정없이 첨가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한다(p84).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적격성(competency)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 이론화한 것을 인종 민감형 실천(ethnic-sensitive practice)이라고 일컫는데<sup>3)</sup>, 다양한 문화체계 속의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 속에서 이론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이 갖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함의는 다양성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원칙이 연구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Alspach, S. (1982). Women's sex-role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Sociological Focus*, 15(3), 279-287.

Baker, D. B. (1985). The study of stress at work.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6, 367-381.

Baruch, G. D., & Barnett, R.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Baucorn, D. H., & Sanders, B. S.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as factors in femin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4), 378-384.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ridges, J. S. (1981). Sex-typed may be beautiful but androgynous is good. *Psychological Reports*, 48, 267-272.

Clark, V. A., Aneshensel, C. S., Frerichs, R. R., & Morgan, T. M. (1981). Analysis of effects of sex and age in response to items on the CES-D scale. *Psychiatric Research*, 5, 171-181.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Elmsford, NY : Pergamon Press.

Devore, W., & Schlesinger, E.G. (1991). *Ethnic-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3rd ed.). New York : Macmillan.

Fennell, M. J. (1995). Depression. in K. Hawton, P. Salkovskis, J. Kirk, & D. Clark(Eds.),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sychiatric problems : A practical guide*(pp.169-234).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3) 인종민감형 실천이란 클라이언트가 속한 인종 집단의 가치나 성향, 그의 사회계급 상의 지위 등과 조율되어야만 한다고 Devore 와 Schlesinger는 주장한다(Devore & Schlesinger, 1991).

- Gore, S., & Mangione, T. W. (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00-312.
- Gump, J. P. (1972). Sex-rol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79-92.
- Hankin, J. R., & Locke, B. Z. (1982). The presence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prepaid group practice enrollees : An exploratory study. *Am J Pub Health*, 72, 1000-1006.
- Hinrichsen, J. J., Follansbee, D. J., & Ganellen, R. (1981). Sex-role-related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6), 584-592.
- Holmes, M. G. (1982). Sex role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alt Lake City, UT.
- House, E. A. (1986). Sex-role orient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 and one-provider couples. *Sex Roles*, 14(5/6), 245-259.
- Hurh, W. M., & Kim, K. C. (1984). Acculturation : Adhesive adaptation to American culture In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pp. 73-86). Rutherford, NJ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Hurh, W. M., & Kim, K. C. (1988). Uprooting and adjustment : A sociological study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Grant NO. 1 RO1 NG40312-01/5 RO1 MH40312-02). Washington D. C.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Juni, S., & Grimm, D. W. (1993). Marital satisfaction and sex-roles in a New York metropolitan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73, 307-314.
- Keith, P. M., & Hong, S. H. (1994). Depressive symptoms of younger and older Korean married women. *Journal of Comparative Studies*, 25(2), 223-231.
- Kelly, J. A., & Worell, J. (1977). New formulation of sex roles and androgyny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01-1115.
- Kim, K. C., & Hurh, W. M. (1980). Social and occupational assimilation of Korean immigrant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Sociologist*, 3(2), 125-142.
- Kim, K. C., & Hurh, W. M. (1988). The burden of double roles : Korean wives in the USA. *Ethnic and Racial Studies*, 11(2), 151-167.
- Kim, U. (1989).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 What are the hidden costs? *Korea Observer*, 10, 431-454.
- Kim, U., & Berry, J. W. (1985). Acculturation attitudes of Korean immigrants in Toronto. In I. R. Lagunes &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

- e :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pp. 93-105). Lisse : Swets & Zeitlinger; Berwyn (PA) : Swets North America 1985.
- Krause, N. (1982). Married women and depressive symptoms. *Sociological Focus*, 15(1), 25-40.
- Krause, N. (1983). Conflicting sex-role expectations, housework dis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ull-time housewives. *Sex Roles*, 9(11), 1115-1125.
- Krause, N. (1984). Employment outside the home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Psychiatry*, 19, 41-48.
- Kuo, H. W.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ease*, 172, 449-457.
- Lee, I. S. (1988). Korean-American women's experience : A study in the cultural and feminist identity formation process. New York, NY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Min, P. G. (1989). Some positive functions of ethnic business in an immigrant community : Koreans in Los Angeles :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Min, P. G. (1992a). Korean immigrant wives' overwork.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1), 23-36.
- Min, P. G. (1992b).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1370-1394.
- Nezu, A. M., & Nezu, C. M. (1987). Psychological distress, problem solving, and coping reactions : Sex-role differences. *Sex Roles*, 16, 205-214.
- Noh, S. (1998). Measuring depression in Korean immigrants : Assessing validity of the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the CES-D scale. *Cross-Cultural Research :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32(4), 358-377.
- Noh, S., Avison, W., & Kaspar, V. (1992a).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84-91.
- Noh, S., Speechley, M., Kaspar, V., & Wu, Z. (1992b). Depression in Korean immigrants in Canada : I. Method of the study and prevalence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9), 573-577.
- Noh, S., Wu, Z., Speechley, M., & Kaspar, V. (1992c). Depression in Korean immigrants in Canada : II. Correlates of gender, work and marriag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9), 578-582.
- O'Heron, C. A., & Orlofsky, J. L. (1990). Stereotypic and non-stereotypic sex-role trait and behavior orientations, gender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34-143.
- Orlofsky, J. L. (1980). Sex-role orientation. In R. H. Woody (Ed.), *Encyclopedia of clinical assessment* (pp. 656-672).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Rendely, J. G., Holstrom, R. M., & Karp, S. A. (1984). The relationship of sex-role identity, life style, and mental health in suburban American homemakers : I. Sex-role employment and adjustment. *Sex Roles*, 11, 839-848.
- Radloff, L. S., & Locke, B. Z. (1986). The community mental health assessment survey and the CES-D scale. In M. M. Weissman, J. K. Myers, & C. E. Ross (Eds.) *Community Survey of Psychiatric Disorder*. New Brunswick,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 Roberts, R. E. (1980). Reliability of the CES-D scale in different ethnic context. *Psychiatry Research*, 2, 125-134.
- Roberts, R. E., Vernon, S. W., & Rhoades, H. M. (1989). Effects of language and ethnic statu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with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581-592.
- Schlesinger, E. G., & Devore, W. (1995). Ethnic-sensitive practic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s). Washington, D.C.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Shin, K. R. (1992).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Shin, K. R. (1993).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among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0(5).
- Song, Y. I. (1986). Battered Korean women in urban America :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conflict to wife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Texas :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einberg, F. C., Leichner, P. P., & Harper, D. W. (1987). The interaction of sex-role identity and ideology conflicts with depression in women and men. *Social Psychiatry*, 22(1), 8-13.
- Taylor, M. C., & Hall, J. A.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 Van Fossen, B. E. (1981).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 and equ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130-143.
- Verbrugge, L. M. (1983). Multiple roles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6-30.
- Verbrugge, L. M. (1986). Role burdens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and men. *Women and Health*, 11(1), 47-77.
- Weissman, M., Sholomskas, D., & Pottenger, M. (1976). Assessing depressive symptoms in five psychiatric population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6, 203-214.
- Whitley, B. E. J. (1983).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73-786.
- Whitley, B. E. J.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Whitley, B. E. J., & Gridley, B. E. (1993). Sex-role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 latent variables analy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363-369.
- Zammichieli, M. E., Gilroy, F. D., & Sherman, M. F. (1988). Relation between sex-role orient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4), 747-754.